

영암, 신속·치밀한 방역정책 '눈길'

문자 발송체계 개편·어르신 증명서 발급 호응 공무원 모니터링 강화...위반 즉시 행정 처분도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관내 기관들과 연계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마을 방송 및 문자 송신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기승부리고 있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델타보다 2배 이상 강해 확산하면 위험성이 크므로, 확진자 발생 시 발생상황과 주의사항

을 신속하게 알려 지역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영암군 관계자는 밝혔다. 먼저 영암군은 확진자 발생 시 주민들에게 확진자 발생상황과 주의사항을 문자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송출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인 확진될 경우에는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즉시 문자 송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제든 확진자 증폭으로 자가격

리자 및 재택치료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신규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재택 치료 대응 태세 정비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점검도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인근 시·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등)을 중심으로 12일까지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이행실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일상 회복 멈춤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해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해남, 소상공인 지원 역점 추진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의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는 특례보증 대출, 이자, 보증수수료 지원이 실시된다. 특례보증 대출은 해남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협약을 맺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3%의 대출이자(최대 180만원)와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김정수 완도해양경찰서장 취임



제22대 김정수 완도해양경찰서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취임식은 과장, 계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김정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해양경찰 ▲예상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 안전 수호 ▲해양치안 확보 ▲직원들 상호 간의 배려하는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완도·최규모 기자



강진군은 최근 금실농원 사거리에서 이승욱 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군의장, 차영수·김용호 도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백신 접종 완료자 100여 명만 참석해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통

44억원 투입...복합면서 동부권 시간 단축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금실농원 사거리에서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욱 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군의장, 차영수, 김용호 도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백신 접종 완료자 100여 명만 참석해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복합면(좌천면, 병영면, 읍천면)과 동부권을 잇는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지난 2019년 7월 착공 후 올해 1월까지 약 2년 5개월

간 진행된 민선 7기 주요 중장기 프로젝트다. 국비 7억 원을 포함해 총 44억 원을 투입했으며 도로는 총 길이 1,453m에 2차선 도로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 및 교차로 3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도로 개통으로 복합면에서 강진을 진입하는 경우 약 1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며 2026년 준공 예정인 까치내재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ESG 윤리경영 가치 확산 백년대계 도약 기틀 완성”

2022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아우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명현관 최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마무리해 빛나는 해남의 비전을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의 가치를 군정의 전 분야에서 확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른 역점사업으로는 해남 입지가 결정된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탄소중립 에듀센터의 위상을 만드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해남군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농업분야는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지원을 구성, 사전철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25년 설립이 예정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첨단농업 및 신산업의 확대,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광역단위 채소류 출하조절센터 설립 및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해남배추·해남김치의 세계화를 모색하며, 고구마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해남 고구마 명품화도 추진하게 된다.

해남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 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액을 기록한 해남 사랑상품권의 유통 플랫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남군민광장 조성 사업,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및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들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누수 없이 추진해 조기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수영 관광지는 우수영 역사관광촌 사업 등 기반을 완료하고, 야간 경관을 대폭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명 군수는 “이제 높아진 역량만큼 바르고 유능한 윤리경영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군정으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도약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 남미륵사, 인스타 빛낸 관광지 선정

강진군 군동면에 위치한 남미륵사가 지난해 인스타를 빛낸 관광지에 선정됐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 트렌드 리포트 ‘인스타를 빛낸 올해의 여행지 총결산’에서 강진 남미륵사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여행지 3위를 차지했다. 세계불교미술대중충분산인남미륵사는 강진군 군동면 풍동길 화방산에 있는 동양

최대 아미타 부처상이 있는 사찰이다. 1980년에 법흥 스님이 창건했으며 40여 년 동안 불사를 중창하고 빨강, 분홍 다양한 색의 철쭉꽃 천만그루가 사찰 안팎으로 아름답게 가꿔져 있어 철쭉이 만개하는 봄이 되면 사진을 찍고 인증사진을 남기기 위해 매년 국내외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진도교육청, 교육 수호천사 표창

진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진도교육을 위해 힘쓴 교육수호천사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교직원·학부모·지역민 13명을 대상으로 시상식으로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함께하는 교육, 모두가 보배로운 혁신진도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적 노력과 교육활동 추진 성과가 탁월한 유공자를 치하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문포 교육장은 “지난해 진도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교육가족을 발굴하고 시상해 모범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서호면, 신임 이장 임명식

영암군 서호면은 최근 면장실에서 이장단장, 신임 이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명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신임 이장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 소개 및 이장 직무교육도 함께 병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

했다. 노명환 서호면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장 직책을 맡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민과 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살기 좋은 서호면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고 면정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연성 임채성 대표, 전기공사 재능기부

무안군 망운면은 최근 ㈜연성 임채성 대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노인회관의 LED 전등을 교체하고 노후 전기시설을 수리하는 등 재능기부를 실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대표는 “노인회관의 어두웠던 조명과 복잡한 전기선들을 보니 누전 사고가 염려됐다”며 “이번 전기공사로 어르신들이 밝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노인회 망운면분회장은 “임 대표님 덕분에 회원들이 안심하고 노인회관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임 대표는 지난해에도 관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1,300만원 상당의 방한복 87벌을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